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영향관계에 대한 사상체질 간 다집단 분석

이유리*, 박정숙**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multi-group analysis of Sasang constitution typ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life stress and mental health

Yu-Ri Lee*, Jeong-Sook Park**

Dept. of Social Welfare, Nambu University*

Dep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영향관계에서 체질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 38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QSCC II를 활용하여 사상체질 유형을 구분하였으며(소음인 136명, 소양인 139명, 태음인 114명), 사상체질집단 간 유의미한 영향관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영향관계에 있어 소음인집단-소양인 집단 간 그리고 소양인집단-태음인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소양인보다는 소음인과 태음인으로 분류된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대한 보다 더 많은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상체질에 적합한 차별화된 중재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사상체질, QSCC II, 대학생활스트레스, 정신건강, 다집단분석, 구조방정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the Sasang constitution typ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life stress and mental stress. The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from 389 university students and 389 students were classified by QSCC II.(136 So-Eum, 139 So-Yang, 114 Tae-Eum). Multi-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university life stress on mental health according to the type of sasang constitution.

Multi-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university life stress on mental health according to the type of sasang constitution. According to multi-group analysi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university life stress on mental health across So-Eum-So-Yang, Tae-Eum-So-Yang. Based on these results, a differentiated intervention plan suitable for sasang constitution was proposed.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 QSCC II, University life stress, Mental health, Multi-group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ceived 30 November 2016, Revised 30 December 2016
Accepted 20 January 2017, Published 28 Jan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Jeong-Sook Park
(Dep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Email: pk0207@namb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스트레스는 개인에 의해 지각되는 내·외적 자극을 가 르키며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생리적 변화를 유발한다 [1].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도와 대처방식은 스트레 스를 유발하는 객관적인 자극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 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개인 성격특성이나 정신건강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이 매개되어 고려되어야한다[2, 28].

한의학은 정신과 신체를 상호보완관계로 보며[3], 한 의학 고유의 심신관(心身觀)이 체계적인 이론으로 구축 하여 발달된 것이 사상 체질의학이다[4]. 한의학의 독창 적인 이론인 사상 체질의학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생 리적 경향으로 체질에 따라 독특한 생리와 병리를 가지 며, 심신의학적 특성이나 스트레스에 관련된 정신건강 에도 상당한 연관이 보고되고 있다[5].

사상체질은 1854년 동무 이제마에 의해 발표된 의학 으로 성정을 중시하며 인체의 장부에 대소, 기능의 불균 형이 체질적 특성과 병인이 되며 이로 인해 개인의 심리 상태, 성격 등에 영향을 미친다[6].

태양인은 소통이 쉽고 과단성이 있으며, 마음이 진실 되고 성실하여 다른 사람의 간섭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소양인은 성질이 굳세고 강인하지만 자신의 역 량이 미치지 않으면 자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술직 담백 하고 의협심과 봉사정신이 강하다. 태음인은 꾸준하고 끈기가 있으며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지나쳐 탐욕이 되 는 경향이 있으며, 소음인은 단정하고 신중하며 소심한 경향이 있으며 소극적이며 추진력이 약한 경향이 있다 [7,8,9].

체질에 따른 심리적, 생리적 장단점이 있으며,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환경이 자신의 체질과 상반된 압박으로 오면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10, 31].

사상 체질의학에서 말하는 성정은 선천적으로 부여 받은 기질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희노애락 (喜怒哀樂)의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상체질별 심 리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MMPI(Myers -Briggs Type Indicator)[11], 16성격검사(16PF)[12,13], Beck 우울척도(BDD)와 상태특성 불안척도(STAD)[14], 기질 및 성격검사(TCI)[15] 등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6,17]. 특히 사상체질에 따 른 스트레스반응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상체질별

스트레스반응간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18,19] 사상체질별 심리 정신특성에 따른 유의한 결과들을 보고 하였다[20].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사상체질 간 스트레스 반 응 차이 분석, 사상체질 간 정서적 특성의 차이 분석, 체 질별 심리적 증상에 따른 양상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분 석하는 연구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의 체질 집단 간 개별 변수의 단순 차이 분석 및 단순 상관 관계 위주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 건강 수준의 영향력 정도가 체질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달 리 나타나는지 다양한 영향 및 경로관계에 대한 집단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스 트레스 상황에서 정신건강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한 사 상체질 유형에 대한 인식 및 사상체질별로 차별화된 전 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초점화한 것은 사 회인구학적 특성 및 경험의 동질성이 확보된다는 장점과 더불어 졸업 이후 바람직한 진로 및 취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예방이 중요한 과제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29, 3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상체질 유 형을 구분하고,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서 체질집단 간 영향력의 차이에 대하여 다집단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며, 조사방법은 편의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총 38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남학생은 169명, 여학생은 220명이었 다. 사상체질 유형은 소음인 136명(35.0%), 소양인 139명 (35.7%), 태음인 114(29.3%)명으로 구분되었다. 평균연령 은 22.54세(표준편차 1.827)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2.2.1 사상체질분류 검사지

(QSCC II: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QSCC II는 객관적으로 사상체질을 진단하기 위해 경희대학교에서 개발하여 사상의학회에서 공인된 검사법으로 현재까지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발자인 김선호 등[21]이 보고한 체질진단 정확률은 70%이고, 내적 일치도(Chronbach's α)는 태양인 0.57, 소양인 0.57, 태음인 0.57, 소음인 0.63으로 보고되었다. QSCC II 설문지는 체형이나 용모와 관련된 신체적 요소(8문항), 행동적 또는 성격적 특징과 관련된 심성적 요소(80문항), 체질별 취약한 병의 종류와 관련된 병증요소(24문항), 그리고 응답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동기왜곡 문항(9문항)을 합하여 총 12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2.2 대학생삶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생삶스트레스 척도는 진검주·김교현[22]의 연구에서 제작한 것으로 각 문항에 대해 경험빈도와 중요도를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는데,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면과제차원 4개요인(학업문제,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관문제)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34으로 나타났다.

2.2.3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신건강척도로는 Derogatis와 Cleary[23]에 의해 제작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김광일·김재환·원호택이 재표준화한 9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SCL-90-R을 사용하였다. 편집증(Paranoid ideation)과 정신증(Psychoticism)이 병리적 측정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과 보다 관련성이 깊을 것으로 여겨지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47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SPSS 18.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기술통계를 활용한 평균, 표준편차, 정규성 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X^2 , CFI,

TLI, RMSEA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24]. 다음으로, 사상체질집단 간 대학생삶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결과

3.1 측정변수간 기술통계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고,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어 정확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25]. 이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다변량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검토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조건(왜도<2, 첨도<7)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모형에 선정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Categories		M (SD)	Skewness	Kurtosis
Stress of university life	Career	2.021 (.596)	.528	.136
	Economy	1.638 (.636)	1.122	1.043
	Values	1.911 (.640)	.636	.233
	Study	2.129 (.646)	.250	-.500
Mental health	Depression	46.00 (9.066)	1.053	.955
	Anxiety	44.25 (9.404)	1.537	2.203
	Compulsion	46.68 (8.848)	.600	-.017
	Somatization	48.00 (10.334)	1.547	2.854
	Interpersonal sensitivity	45.35 (9.520)	1.235	1.648
	Hostility	46.95(8.513)	1.721	3.548

3.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지수가 $r < .8$,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10이하로 나타나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값이 0.1이하일 때만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는데, 모두 0.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related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1									
2	.637**	1								
3	.584**	.782**	1							
4	.650**	.791**	.764**	1						
5	.775**	.750**	.743**	.798**	1					
6	.616**	.636**	.705**	.673**	.670**	1				
7	.348**	.521**	.399**	.464**	.401**	.337**	1			
8	.382**	.442**	.432**	.497**	.413**	.337**	.411**	1		
9	.382**	.610**	.511**	.612**	.480**	.398**	.497**	.443**	1	
10	.242**	.395**	.273**	.326**	.297**	.247**	.441**	.256**	.349**	1

1)Somatization, 2)Compulsion, 3)Interpersonal sensitivity, 4)Depression, 5)Anxiety, 6)Hostility, 7)Career, 8)Economy, 9)Values, 10)Study
 ** p<.01,

3.3 연구모형분석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세 체질집단 모두에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대학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각 잠재변수들에 대한 측정모형 분석 결과, 잠재변수인 대학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측정변수 4개(학업, 가치관, 경제, 장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측정변수 6개(우울, 불안, 각박, 신체화, 대인예민성, 적대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적합도 지수의 평가 기준이 확립된 CFI, TLI, RMSEA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Browne 과 Cudeck[26]에 따르면 RMSEA는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5~.08 사이는 적합한 적합도, .10 이상이면 부적합한 적합도이다. TLI와 CFI의 경우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라고 할 수 있다[27].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ath	So-Eum				So-Yang				Tae-Eum			
	B	β	S.E.	C.R.	B	β	S.E.	C.R.	B	β	S.E.	C.R.
Stress→ Mental health	18.499	.800	3.265	5.667***	15.763	.737	3.113	5.063***	26.426	.861	5.880	4.494***
Stress→ Study	1.000	.565			1.000	.497			1.000	.448		
Stress→ Values	1.121	.695	.202	5.555***	1.603	.784	.301	5.327***	1.827	.783	.407	4.495***
Stress→ Economy	.788	.498	.176	4.475***	1.152	.599	.243	4.738***	1.717	.694	.398	4.311***
Stress→ Caree	1.072	.633	.198	5.411***	1.281	.715	.248	5.159***	1.346	.636	.324	4.159***
Mental health → Depression	1.000	.898			1.000	.903			1.000	.907		
Mental health → Anxiety	1.002	.856	.070	14.249***	.827	.835	.061	13.607***	1.097	.897	.073	15.027***
Mental health → Compulsion	.963	.909	.059	16.321***	1.067	.885	.070	15.390***	.888	.869	.064	13.903***
Mental health → Somatization	.878	.719	.085	10.279***	.833	.665	.091	9.127***	.967	.732	.098	9.843***
Mental health → I.S.	.983	.865	.067	14.588***	.976	.824	.074	13.249***	1.054	.888	.072	14.650***
Mental health → Hostility	.668	.733	.063	10.658***	.869	.705	.086	10.068***	.908	.852	.068	13.266***
Goodness of fit												
χ ²	62.837 (p=.000, df=32)				88.192 (p=.000, df=32)				56.946 (p=.004, df=32)			
TLI	.850				.904				.959			
CFI	.965				.932				.971			
RMSEA	.084				.093				.083			

*** p<.001

3.4 대학생활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집단분석

대학생활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상체질집단 간 차이에 대한 다집단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첫째, 대학생활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소음인집단 - 소양인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활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소음인집단 - 태음인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활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소양인집단 - 태음인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Multi-group Analysis

path	$\chi^2_{(1)}$	So-Eum		So-Yang	
		Estimate(B)	Standardized(B)	Estimate(B)	Standardized(B)
Stress→Mental health	6.756**	21.320***	.809	13.843***	.726
path	$\chi^2_{(1)}$	So-Eum		Tae-Eum	
		Estimate(B)	Standardized(B)	Estimate(B)	Standardized(B)
Stress→Mental health	0.268	23.645***	.816	21.810***	.862
path	$\chi^2_{(1)}$	So-Yang		Tae-Eum	
		Estimate(B)	Standardized(B)	Estimate(B)	Standardized(B)
Stress→Mental health	5.430*	17.123***	.730	24.415***	.864

* p<.05, ** p<.01, *** p<.001,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상체질 유형을 구분하고,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체질집단 간 영향력의 차이에 대하여 다집단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영향관계에 있어 소음인집단 - 소양인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5, 11, 20]를 지지하는 것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정도가 소음인이 소양인 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둘째,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영향관계에 있어 소양인집단 - 태음인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는 선행연구[4, 15, 19]를 지지하는 것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정도가 태음인이 소양인 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셋째, 소음인집단과 태음인집단 각각의 연구모형에 있어서는 대학생활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대학생활을 하면서 장래(취업), 경제문제, 가치관문제, 학업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정신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직접적 영향력이 소양인집단 보다는 소음인 집단인 대학생의 경우 그리고 소양인 집단보다는 태음인 집단인 대학생의 경우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대한 중재를 할 때 소양인인 대학생들보다는 소음인과 태음인인 대학생들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4.2 제언

위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상체질 분류에 따른 스트레스 개입 방법의 연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음인 체질로 분류된 학생들이 대학생활스트레스에 노출되고 그 영향으로 정신건강 수준이 악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되었다. 이에 작은 일에도 지나친 신경을 쓰고 늘 불안한 심리가 강하며 내성적인 성정을 지닌 소음인 대학생들에 대해 정신건강이 병리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지지적인 개별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스트레스 대처와 치유 프로그램 참여 등이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상체질론에 대한 이해 및 체질분류 기회 제공을 위해 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 과정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QSCC 척도를 활용하였고 체질진단 정확도를 통해 분류된 바, 동양의학적 사상체질을 주제로 비교과 특강이나 시리즈 형태의 강연, 학과별 집단 분석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체질에 대해 분석 받고 인식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한의학적 체질론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 등의 대학생들에게 상기 프로그램들을 더욱 활성화하여 자신의 체질에 대한 인식, 체질별 정서적 행동적 측면 및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동양의 사상의학적 이론 배경인 사상체질 개념과 서양의 심리학적 이론 배경인 심성적 구성 개념을 융문화적으로 동시에 탐색하고 이를 대학생들의 상담지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MBTI, MMPI, PANAS 등 성격 및 심성적 구성 개념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와 QSCC와 같은 사상체질 변별 도구를 동시에 활용하여 스트레스 취약한 고위험군 대학생들에 대한 상담지도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생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고위험군에 대한 융복합적 중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우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체질인 소음인과 태음인 체질로 분류된 학생들에게 MMPI, SCL-90와 같은 심리 및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개별 상담과 동시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한다. 개별상담에서는 전공학습성취도 저하 및 학습부적응 등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진로불안도 상승 및 취업준비도 미비 등으로 인한 취업 스트레스에 대하여 강점관점에 입각한 집중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단상담에서는 학과부적응 및 이성관계 갈등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하여 다루면서 자기와 다른 사상체질로 구분된 사람들의 체질별 스트레스 반응 차이, 정서표현 및 행동 특성 차이를 이해하고와 정신건강 취약성 차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모집할 때 무작위 표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에 동의하고 협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스트레스 대처유형에 대한 체질집단별 차이 그리고 정신건강의 하위요인들 각각에 대한 체질집단별 차이 등에 대하여 향후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Folkman, S,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es: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6, No. 4, pp. 839-852, 1984.
- [2] I. H. Kim, "Exercise therapy and mental health for stress managem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9, No. 3, pp.328-343, 2000.
- [3] K. S. Park, H. K. Kim, "Eating habit of women's college students by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Vol. 32, No. 2, pp.302-307, 2003.
- [4] H. Chae, I. K. Lyoo, S. H. Cho, H. S. Bae, M. C. Hong, M. K. Shin, "An alternative way to individualized medicine: psychological physical traits of Sasang typology", *Journal of Altern Complement Med*, Vol. 9, No. 4, pp.519-528, 2003.
- [5] H. I. Park, K. I. Lee, "A study of personality traits in Sasang constitution according to comparative analysis of QSCC II & NEO-P-I-R", *Journal of Sasang Const. Med*, Vol. 12, No. 2, pp.104-122, 2000.
- [6] H. S. Park, J. C. Ju, J. H. Kim, K. Y. Kim, "A study on clinical application of the QSCC II", *Journal of Sasang Const. Med*, Vol. 14, No. 2, pp.35-44, 2002.
- [7] W. Y. Sung, J. Y. Kim, "Temperament and character profiles of Sasang constitu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Med*, Vol. 22, No. 3, pp.55-64, 2011.
- [8] G. A. Choi, "The study of Personality traits in Sasang constitution by NEO-P-I-R", Ph. D. dissertation, Dongshin University, 2009.
- [9] Y. W. Kim, E. J. Lee, S. M. Choi, J. H. Kim, S. I. Jung, H. M. Lee, J. W. Kim, "The study about the QSCC II for the diagnosis of Sasang constitution", *Journal of Sasang Const. Med*, Vol. 15, No. 3, pp.11-21, 2003.
- [10] J. B. Park, "The 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type and physical constitution classified by Sasang medicine", Ph. D. dissertation, Seoul Women's

- University, 2003.
- [11] J. W. Kim, J. H. Kim, U. W. Hwang, "Clinical study 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alcoholic patients-with MMPI & Sasang constitution",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Med*, Vol. 3, No. 1, pp.65-85, 1992.
- [12] E. Y. Choi, S. K. Shin, "A study on the traits of MBTI types by the sasang constitution", *Korean Journal of Aesthetic Society*, Vol. 5, No. 2, pp.1-14, 2007.
- [13] S. M. Choi, S. E. Chi, B. Y. Jung, K. S. Ahn, B. H. Koh, H. J. Sung,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 and Myers-Briggs Type Indicator",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Vol. 6, No. 1, pp.47-57, 2000.
- [14] H. Chae, S. H. Park, S. J. Lee, K. C. Koh, "Sasang typology from a personality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Orient Med*, Vol. 25, No. 1, pp.151-164, 2004.
- [15] D. S. Choi, "Characteristics of Sasang constitution by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2010.
- [16] Harmon-Jones, E., Harmon-Jones, C., Abramson, L., Peterson, C. K., "PANAS positive activation is associated with anger", *Emotion*, Vol. 9, No. 2, pp.183-196, 2009.
- [17] K. E. Lee, N. S. Kim, J. G. Ryu,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 and type A/B personality in Kangwon provi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Vol. 9, No. 2, pp.201-212, 2002.
- [18] N. H. Cha, M. J. Wang, J. A. Kim, K. N. Lee, "Difference of physical symptoms PWI and JCQ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s for industrial wor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6, No. 4, pp.508-516, 2005.
- [19] E. Y. Choi, B. S. Chang,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stress response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s", *Korean Journal of Oriental Preventive Medical Society*, Vol. 12, No. 3, pp.175-183, 2008.
- [20] H. Chae, S. J. Lee, S. J. Park, B. J. Kim, J. W. Hong, M. W. Hwang, S. N. Lee, C. H. Han, W. K. Kwon, "Neurotic characteristics of Sasang types with SCL-90-R",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Vol. 24, No. 4, pp.722-726, 2010.
- [21] S. H. Kim, B. H. Ko, I. B. Song, "The standardization study of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QSCC II)", *Journal of Sasang Const. Med*, Vol. 8, No. 1, pp.187-246, 1996.
- [22] K. K. Jeon, K. H. Kim, "Development of college life stress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0, No. 1, pp.137-158, 1991.
- [23] Derogatis, L. R., Cleary, P. A., "Factorial invariance across gender for the primary symptom dimension of the SCL-90",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6, pp.347-356, 1977.
- [24] Se-hee Ho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9, No. 1, pp.161-177, 2000.
- [25] Curran, P. J., West, S. G., Finch, J.,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Vol. 1, pp.16-29, 1996.
- [26] Browne, M. W., Cudeck, R.,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Sage, Newbury Park, California, 1993.
- [27] Bentler, P. M, Chou, C.,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Vol. 16, pp.78-117, 1987.
- [28] Mi-Jin Kim, Gyun-Young Kang, "The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39-47, 2015.
- [29] Kyoung-A Chung, Ji-Hyun Cho, "Differences between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t On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43-155, 2015.
- [30] Seo-Yeon Kim,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i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Decision Attitud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 115-122, 2016.

- [31] Byung-Won Min, “An Improvement of Personalized Computer Aided Diagnosis Probability for Smart Healthcare Service System”,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 79-84, 2016.

이 유 리(Lee, Yu Ri)



- 199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복지학과(문학사)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복지학과(문학석사)
- 200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복지학과(문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장애인 가족, 아동청소년정신건강
- E-Mail : yrlee@nambu.ac.kr

박 정 숙(Park, Jeong Sook)



- 1996년 2월 : 원광대학교 약학과(약 학석사)
- 2002년 2월 : 원광대학교 약학과(약 학박사)
- 2006년 3월 : 남부대학교 대체학과 교수
- 2014년 9월 ~ 현재 : 남부대학교간 호학과교수

- 관심분야 : 생약학, 대체의학
- E-Mail : pk0207@nambu.ac.kr